

북한 종합시장의 지역별 분포와 운영 현황*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mhong@kinu.or.kr

I. 조사 및 분석 개요

1. 조사 목적

1990년대 북한에서 시장이 경제활동의 중요 영역으로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북한 시장(market, marketplace) 또는 시장화(marketization)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제출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경제를 비롯해 정치 및 사회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에 대한 일관된 지표 생성과 축적은 사실 미약했다. 본 조사는 북한에서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시장화 수준을 판단하는 연구정보의 생성 차원에서 공식시장에 해당하는 종합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북한의 공식시장을 구체적인 물리적 좌표와 공간상에서 확인하고 정보화하여 지속적으로 축적함으로써 시장화 추이에 대한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일종의 ‘시장정보의 공간정보화’에 해당한다.

우선 북한 전국에 있는 종합시장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하고 지역별(도·시·군·구·지구) 개수를 파악하고자 했다. 둘째, 파악된 지역별 종합시장의 면적과 매대 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체 종합시장 관련 종사자 수를 추정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북한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종합시장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식 정보나 현지 조사가

* 본 원고는 통일연구원에서 발간 예정인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종합시장 현황을 중심으로』의 일부를 요약한 내용이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우선, 본 조사에서는 구글어스(Google Earth)를 적극 활용하여 북한 행정구역 체계상의 27개 시(市), 141개 군(郡), 3지구(地區), 2구(區)에 운영 중인 종합시장의 위치를 북한 이탈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공간적 분포 현황을 조사했다. 둘째, 북한 지리 관련 문헌과 지도를 기초자료로 참고하였다. 이들 문헌과 지도는 북한 행정구역상의 시·군 및 동·리의 지명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였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면담을 통해 지역시장의 위치와 현황을 교차 확인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조사는 우선 1단계로 약 3개월에 걸쳐 출신 지역별로 북한 이탈주민 면담을 총 36회 진행하였다. 면담을 하며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집계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2016년 9월 23일 종합시장 전체 1차 집계를 하였다. 1차 집계 결과 파악된 종합시장 수는 총 393개였다. 이후 추가적인 조사로 새롭게 파악된 시장과 폐쇄되거나 이전된 시장을 반영하여 2016년 12월 2일 2차 집계로 총 405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후 추가 파악된 시장과 이전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2016년 12월 5일 최종 집계 결과로 종합시장 404개를 확정하였다.

3. '종합시장'의 위상

본 조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종합시장'은 2003년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 허가된 시장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해당 도(道)·시(市) 당국이 허가한 장소에 건물과 시설을 갖추고 자릿세 및 장세를 내고 장사하는 곳을 말한다.¹⁾ 북한 당국은 2003년 '종합시장' 개설을 허용한 후 시장에 대한 제도적 관리 차원에서 기존의 장마당을 대대적으로 정비(신축, 개축, 증축)하며 '○○시장'이라고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약 15년이 경과하며 종합시장은 외형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에는 기존 시장 형태와는 달리 완전히 지붕을 덮고 실내도 2층 난간 형태로 매장을 품목별 배치하여 상품 전시효과를 높이는 백화점식 형태의 시장도 등장하기도 했다. 시장의 위치도 기존에 외곽이나 산기슭 등 후미진 곳에 배치하여 외관을 가급적 가리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도심 한가운데 조성하여 개방성과 접근성을 적극 살리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시장을 시(市)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기본시설은 형태적으로 일정하게 변화되어 왔지만, 현재 시장관리소 건물, 시장 울타리, 매대, 지붕(전체 덮개형, 부분 덮개형), 자전거보관소, 짐 보관소, 화장실, 정문, 후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북한 전국의 종합시장 운영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²⁾ 북한의 도매시장은 전국적인 시장 네트워크의 형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심장’ 역할을 한다. 사실상 전국적 유통망의 핵심적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한적이고 초보적이지만 생산을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전국적인 도매 유통기능이 작동함에 따라 지역 및 전국을 상대로 한 생산 역시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적 도매시장이 입지한 도시는 각종 상행위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운송 관련 이익과 편의 기반이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물자·화폐·인구·정보가 집적되면서 각종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서 도매시장은 일정 부분 입지산업이자 지역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 북한 종합시장 지역별 분포

1. 종합시장 전체 수와 도별 시장 분포

가. 도별 시장 분포

조사 결과, 북한의 종합시장 총 개수는 404개로 집계되었다. 북한의 도별(9개 도,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나진특별시) 평균 시장 개수는 40.5개로 나타났다. 도별 시장 분포를 보면, 평안남도에 65개의 시장이 입지하고 있어 압도적 우위를 나타냈다. 평양직할시와 남포특별시를 평안남도에 포함시킬 경우 116개로 전체 시장 404개의 1/4 이상이 평안남도 지역에 위치한다. 다음은 평안북도 51개, 함경남도 48개, 함경북도 46개 순이었으며, 양강도는 18개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수의 시장이 입지하고 있었다.

도별 종합시장 분포의 양적 차이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물자 유통의 동선에 따라 도별 차이가 발생하는 점이다. 가령 평안북도는 신의주-단둥으로의 물자 유입이 활발하고 평안남도는 평안북도와 평양으로 연결되는 유통의 거점이자 중심이란 측면에서 시장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함경북도 역시 북·중 접경지역과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물자 이동의 통로 역할을 하는 지역이기

2) 일반적으로 도매시장(wholesale market)의 기능은 다양한 상품 및 물자를 수집하는 집하기능, 수집된 상품과 물자를 여러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분산기능, 유통 단계별로 상품과 물자의 흐름을 중개하는 중개기능 등을 수행한다. 사실상 도매시장이 상품과 화폐를 빨아들이고 밀어내는 ‘펌프’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홍민,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131).

<표 1> 북한 도별 종합시장 수

도	시·군	종합시장 수	도 전체 합계
평안남도	평성시(도소재지)	6	65
	안주시	3	
	개천시	9	
	순천시	3	
	덕천시	8	
	군(14개)	33	
	운곡지구, 득장지구	2	
	청남구	1	
평안북도	신의주시(도소재지)	6	51
	경주시	2	
	구성시	3	
	군(22개)	40	
함경북도	청진시(도소재지)	19	46
	김책시	3	
	회령시	2	
	군(12개)	22	
함경남도	함흥시(도소재지)	11	48
	단천시	4	
	신포시	4	
	군(15개)	25	
	금호지구	1	
	수동구	3	
황해남도	해주시(도소재지)	4	34
	군(19개)	30	
황해북도	사리원시(도소재지)	4	34
	송림시	3	
	개성시	5	
	군(15개)	22	
평양시	평양시	26	30
	군(2개)	8	
강원도	원산시(도소재지)	4	29
	문천시	3	
	군(15개)	22	
자강도	강계시(도소재지)	2	24
	만포시	3	
	회천시	3	
	군(15개)	16	
양강도	혜산시(도소재지)	5	18
	군(11개)	13	
남포특별시	구역	14	21
	군	7	
나선특별시	선봉지구	2	4
	나선지구	2	
총 계			404

때문에 시장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또는 해외로부터 국내로의 물자 유통 동선과 도별 시장 분포는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도에 속한 시, 군, 지구, 구 등의 행정단위가 많을수록 시장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시장을 많이 보유한 상위 4개의 도(평남, 평북, 함북, 함남)는 행정구역상 보통 3~5개의 시(市)를 보유하고 있다. 종합시장의 설치가 행정단위를 기초로 해당 행정구역 내 주민의 편의를 명분으로 하는 만큼 행정단위의 수는 지역시장 수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인구수와 시장 수와의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별 인구수에서 평안남도는 인구 37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안북도·함경북도·함경남도 등 시장 수 상위 지역 역시 도별 인구 순위 2~5위권에 해당한다. 인구수가 많은 도일수록 행정구역 단위가 많고 시장 수도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인구수와 연동하여 공장·기업소와 노동자가 많은 도일수록 시장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주요 공업지구가 입지하고 있고 다수의 노동자층 인구가 존재할수록 시장 소비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인구수와 시장 수

시장 분포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수와 시장 수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인구수와 시장 수를 대비하면, 북한 종합시장 1개당 인구 대비 평균 5만 6,669명의 인구를 소비층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1개당 가장 많은 인구수를 두고 있는 곳은 9개 도(道)와 평양시, 남포특별시, 나진특별시 중 평양시가 10만 8,510명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황해북도가 시장 1개당 7만 456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양강도와 함경북도는 시장 1개당 각각 3만 9,959명, 4만 4,384명의 인구를 상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단일시로 남포특별시의 경우 시장 1개당 인구 1만 7,467명으로 수치상으로는 가장 조밀하게 시장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포특별시 거주인구에 비해 시장이 많은 것은 남포항이 외부로부터 물자가 들어오는 통로이고 이렇게 들어온 물자들이 남포시의 시장들을 경유하여 타 지역으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평양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외화벌이 기관의 출장소가 남포에 많은 점도 시장 발달의 배경 중 하나이다. 남포시의 시장들은 거주인구를 상대로 한 소비·판매도 있겠지만, 주로 타 지역 유통을 위한 유통 거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 북한 도별 시장 1개당 인구수

도	시장수(단위: 개)	인구수(단위: 명)(순위)	시장 1개당 인구(명)
평안남도	65	3,714,881 (1)	57,152
평안북도	51	2,728,662 (3)	53,503
함경남도	48	2,130,408 (5)	44,384
함경북도	46	3,066,013 (2)	66,652
황해남도	34	2,310,485 (4)	67,955
황해북도	34	2,113,672 (6)	70,456
평양시	30	3,255,288 (7)	108,510
강원도	29	1,477,582	50,951
자강도	24	1,299,830 (8)	54,159
남포특별시	21	336,815	17,467
양강도	18	719,269 (9)	39,959
나진특별시	4	196,954	49,239
전국 합계	404	23,349,859	
도별 평균	40.5		56,699

물론 행정구역별 인구 수를 시장 수로 나누어 1개 시장이 상대하는 평균 인구수를 통해 해당 지역시장의 조밀도를 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령 평양직할시의 경우 시장 1개당 평균 인구수가 10만 8,510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양강도의 경우 3만 9,959명으로 적다. 수치로만 본다면 양강도 지역시장이 인구 대비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고, 평양은 상대적으로 덜 조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주 인구수와 시장 수의 대비만으로 시장의 조밀도를 속단하긴 힘들다. 여기에 시장의 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양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내 교통이 발달해 있고, 구역별로 시장이 골고루 배치돼 있어 평양 내의 시장 접근성은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 시장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하나의 시장이 커버할 수 있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평양시의 경우 시장 1개당 포괄하는 인구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많지만 시장의 접근성과 균질성을 고려하면 시장의 조밀도가 낮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양강도의 경우 전체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적는데다 깊은 산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시장 1개가 포괄하는 인구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시장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거주등록된 해당 지역 인구 이외에 시장을 이용하는 타 지역 유동인구를 고려하면 1개 시장이 포괄하는 인구수는 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 가령 평양남도와 평안북도의 전국 및 지역 도매시장이 있는 도시의 경우 해당 거주인구를 상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도 상대한다. 평안남도의 경우 시장 1개당 평균 5만 7,152명의 지역인구를 포괄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지만, 실제 유동하는 인구를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상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구센서스에 기초한 거주등록인구 기준으로 보면 1개 시장이 포괄하는 평균 인구수에서 일정한 ‘균질성’이 발견되지만 시장의 규모, 접근성, 시장활동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면 각 시장이 실제 상대하는 인구는 균질하지 않고 차이가 클 가능성이 있다. 가령 평성시의 옥전시장 같은 경우 2008년 인구센서스 기준 거주등록인구 28만 5천명을 기준으로 보면 시장 6개를 보유하고 있어 1개 시장이 5만 7,152명 정도를 포괄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옥전시장의 경우 하루 시장 이용객만 10만명이 넘는다는 증언이 많아 지역 주민 이외의 타 지역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시장이 포괄하는 인구는 이보다 몇 배 많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 시(市)별 종합시장 분포

북한에는 행정구역상 평양직할시, 나선특별시, 남포특별시, 그리고 24개의 일반시를 합해 총 27개의 시(市)가 있다. 시별 종합시장 분포를 조사한 결과, 이들 27개의 도시에만 총 176개의 종합시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시장 총수 404개 중 44%가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시가 아닌 군(郡)에는 총 223개의 시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개 시(市)에는 평균 6.52개의 종합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군(郡)에 평균 1.58개 종합시장이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시의 시장 수가 약 4배가량 많다고 볼 수 있다.

시단위 시장 집계 결과, 평양직할시가 총 30개로 단일시로는 가장 많은 시장이 형성돼 있었다. 2위인 남포특별시 21개, 3위인 청진시 19개, 4위인 함흥시 11개 등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수다. 평양시 행정구역내에 있는 강동군, 강남군 등 농촌지역 시장을 제외해도 도심 시가지에만 총 24개의 시장이 들어서 있는 것이다. 평양시는 2008년 인구센서스

〈표 3〉 북한 시·군단위 행정구역별 종합시장 수와 비중

구분	시			군	지구	구
	직할시	특별시	일반시			
행정구역 단위수	1	2	24	141(145)*	3(5)**	2
시장개수	30	25	121	223	3	4
	176					

* 전체 군의 수는 145개이지만, 평양시와 남포시 행정구역 내에 포함된 군 4개는 두 도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외하여 141개로 카운트함.

** 전체 지구의 수는 5개이지만, 나선특별시에 속한 선봉지구와 나선지구는 나선특별시에 포함하여 합을 냄.

기준 인구 325만명으로 소비인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평양시는 총 18개³⁾의 구역이 있어 구역별로 시장이 골고루 분포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표 4〉 27개 도시별 시장 수

순위	시	합계	순위	시	합계
1	평양직할시	30	15	신포시	4
2	남포특별시	21	16	나선특별시	4
3	청진시*	19	17	순천시	3
4	함흥시*	11	18	김책시	3
5	개천시	9	19	회천시	3
6	덕천시	8	20	안주시	3
7	평성시*	6	21	구성시	3
8	신의주시*	6	22	문천시	3
9	개성시	5	23	송림시	3
10	해산시*	5	24	만포시	2
11	사리원시*	3	25	강계시*	2
12	해주시*	4	26	정주시	2
13	원산시*	4	27	회령시	2
14	단천시	4			

* 도소재지

3) 낙랑구역, 대동강구역, 대성구역, 동대원구역, 만경대구역,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 사동구역, 삼석구역, 서성구역, 선교구역, 순안구역, 역포구역, 용성구역, 은정구역, 중구역, 평천구역, 형제산구역

시단위 종합시장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 도소재지일수록 시장이 많이 들어서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소재지 도시에는 전국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도매시장이 입지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종합시장이 많이 들어서 있는 상위권 도시들의 대부분이 도소재지 또는 특별시·직할시에 해당한다. 청진, 함흥, 평성, 신의주, 혜산, 평양, 남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도소재지나 특별시·직할시가 아님에도 10위권 안에 든 도시는 개천시, 덕천시, 개성시 3개 도시이다. 개천시와 덕천시는 탄광지대로서 노동자구가 다수 입지하고 있어 시장이 노동자구마다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⁴⁾

둘째, 도시가 지닌 지리적 조건이 시장 보유 개수와 일정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간지대는 입지 측면에서 평지가 부족하고 교통 연결이 용이하지 않아 대규모 도매시장보다는 지역시장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륙일수록 시장 수가 적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특징이다. 북한 지형상 내륙지역에는 주로 산간지대가 많고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시장 수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 반면, 해안지대를 끼고 있는 도시의 경우, 평지를 넓게 보유하여 시장의 입지와 공간적 확장성이 높고 인구수도 대부분 많은 편이라 시장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종합시장 면적 및 총 매대 수 추정

1. 시장면적 추정

본 조사는 북한 전국에 있는 종합시장 면적을 추정해 보았다. 추정 결과, 전국에 있는 시장의 전체 면적은 183만 9,582㎡(55만 6,474평)로 추계되었다. 면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사례를 든다면, 북한 종합시장의 전체면적은 한국의 일산 신도시 면적(157만 4,000㎡)보다 큰 면적이며, 여의도 면적(290만㎡)의 2/3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각 도와 직할시·특별시 중 시장 전체 면적 순위는 함경남도가 25만 3,218㎡로 가장 넓었으며, 그 다음으로 평안남도(24만 917㎡), 함경북도(21만 7,458㎡), 평안북도(21만 3,112㎡) 순이었다. 셋째, 시장 1개당 평균면적은 4,630㎡(1,401평) 정도로 한국의 시청 광장(1만 3,207㎡)과 잠실야구장(1만 3,880㎡) 면적과 비슷했다.

4) 북한은 어촌, 광산, 대형 공장·기업소 등이 있어 4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집단 거주하는 곳을 '노동자구'로 지정하고 있다. 적게는 400여 명에서 많게는 1,000세대 이상이 거주한다. 북한에는 약 250개의 노동자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노동자구에 크고 작은 시장들이 들어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 북한 도별 종합시장 면적 추계

도	시장 수 (단위: 개)	시장 전체 면적 (단위: m ²)	시장 1개당 평균면적 (단위: m ² , 평수)	최대 면적 (단위: m ²)	최소 면적 (단위: m ²)
평안남도	65	240,917	3,706 (1,121평)	15,842 남포 중대두동	380 개천 용진동
평안북도	51	213,112	4,178 (1,264평)	13,828 정주시장	865 신의주 연하
함경남도	48	253,218	5,275 (1,596평)	16,721 함흥 평수시장	661 고원 부래산구
함경북도	46	217,458	4,727 (1,429평)	23,487 청진 수남시장	612 무산 철송시장
황해남도	34	206,455	6,072 (1,837평)	21,303 해주 양사시장	956 배천 금곡시장
황해북도	34	174,431	5,130 (1,551평)	15,568 송림 새마을	519 신계 역전시장
평양시	30	207,202	6,907 (2,059평)	16,032 낙랑 통일거리	1,284 승호 화천동
강원도	29	101,817	3,511 (1,062평)	15,052 원산 갈마시장	323 천내 화라구
자강도	24	63,572	2,691 (814평)	10,177 강계 외룡시장	459 용림 용림시장
남포특별시	21	103,061	4,908 (1,485평)	15,842 중대동시장	485 중약구시장
양강도	18	31,499	1,750 (529평)	6,901 해산 해산시장	571 보천 보천시장
나진특별시	4	26,840	6,710 (2,029평)	16,869 신흥시장	1,495 중현시장
전국 합계	404	1,839,582 (556,474평)			
도별 평균	40.5	153,299 (46,373평)	4,630 (1,401평)	15,083	718

각 도별 최대 면적 시장들의 평균면적은 1만 5,083m²(4,563평)이었다. 대지면적으로만 본다면, 한국의 동대문시장(1만 4,437m²)보다 약간 큰 규모로 볼 수 있다.⁵⁾ 쉽게 얘기하면, 북한 전국에 한국의 동대문시장 대지면적 규모의 시장이 총 9개 정도 운영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복층형태의 시장을 연면적으로 계산하면, 이보다 수는 늘어날 수 있다.

5) 건물 연면적으로 보면 동대문시장은 5만 9,683m²로 훨씬 넓으나 공간적 넓이 수준을 쉽게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대지면적으로 비교하였다.

2. 종합시장 총 매대 수 추정

종합시장 면적 추정에 기초하여 매대 수도 추정하였다. 추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양직할시, 나선특별시, 남포특별시, 남포특별시, 9개 도(24개 시, 5지구, 3구, 145개 군) 등 행정구역상 177개 단위(시·지구·구·군)에 각각 시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구글어스 위성 이미지에서 확인을 했다. 두 번째로, 구글어스에서 확인된 시장 위치를 토대로 177개 단위별(시·군·지구·구), 도별로 시장 수를 집계하였다. 세 번째로, 구글어스 Pro를 활용해 각 시장의 면적을 시장 울타리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시장면적에서 매대가 차지하는 면적을 추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매대 1개당 크기는 시장과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모두 반영해 매대 수를 추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행정구역상 177개 단위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각 등급에 해당하는 매대 평균면적을 설정하였다. 현재 북한 시장 매대는 작게는 60cm, 크게는 110cm 정도로 규모가 큰 도매시장일수록 매대가 상대적으로 작고 지방 군·읍시장일수록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북한 도시등급별 시·군·지구·구 행정구역 구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분류 항목 상세	전국 도매시장	지역 도매시장	일반 도시시장	일반시·군단위 시장
	전국 단위 유통망	수위도시 대표시장	저위도시 대표시장	저위도시 소규모시장
	도소재지급	도소재지급	일반 도시	일반 도시 및 군
해당 도시	평양시(직할시)	황해북도 사리원시	함경남도 단천시	평안북도 정주시
	함경남도 함흥시	평안남도 순천시	평안남도 개천시	자강도 희천시
	함경북도 청진시	황해남도 해주시	황해북도 개성시	함경남도 신포시
	강원도 원산시	나선시(특별시)	자강도 강계시	황해북도 송림시
	평안북도 신의주시	량강도 혜산시	평안남도 안주시	강원도 문천시
	평안남도 평성시		평안남도 덕천시	자강도 만포시
	남포시(특별시)		함경북도 김책시	군(145개)
			평안북도 구성시	지구(3)*
		함경북도 회령시	구(2)	
개수	7개	5개	9개	6+150=156개
매대 길이(1개)	60cm	70cm	70cm	80cm
매대 면적(1개)	1.4㎡	1.75㎡	1.75㎡	1.9㎡

* 북한 행정구역상 지구는 총 5개로 나선지구, 선봉지구, 운곡지구, 득장지구, 금호지구 등이 있음. 여기에선 나선지구와 선봉지구를 나선특별시로 통합 계산하고 나머지 3개 지구만 독립적으로 계산하였음.

<표 7> 도별 종합시장 매대 수 추정

도	시장 수 (단위: 개)	시장 전체 면적 (단위: m)	시장 1개당 평균면적 (단위: m, 평수)	도 전체 매대 수 (단위: 개)	시장 1개당 매대 수 (단위: 개)
평안남도	65	240,917	3,706 (1,121평)	134,890	2,075
평안북도	51	213,112	4,178 (1,264평)	117,855	2,311
함경남도	48	253,218	5,275 (1,596평)	150,013	3,125
함경북도	46	217,458	4,727 (1,429평)	133,888	2,911
황해남도	34	206,455	6,072 (1,837평)	117,968	3,470
황해북도	34	174,431	5,130 (1,551평)	94,018	2,765
평양시	30	207,202	6,907 (2,059평)	141,992	4,733
강원도	29	101,817	3,511 (1,062평)	61,124	2,108
자강도	24	63,572	2,691 (814평)	34,905	1,454
남포특별시	21	103,061	4,908 (1,485평)	70,034	3,335
양강도	18	31,499	1,750 (529평)	17,134	952
나진특별시	4	26,840	6,710 (2,029평)	19,171	4,793
전국 합계	404	1,839,582 (556,474평)	55,565	1,092,992	
도별 평균	40.5	153,299 (46,373평)	4,630 (1,401평)	91,083	2,836

본 조사에서는 측정된 시장면적을 기초로 각 시·군을 4등급으로 분류, 등급별로 매대 크기(60cm, 70cm, 80cm)를 차등 적용하여 매대 수를 추산하였다. 해당 등급에 속하는 도시의 시장 전체 면적을 등급별 매대 1개 평균면적으로 나눠 총 매대 수를 산출하였다.⁶⁾

추정 결과, 북한 전체 종합시장 총 매대수는 109만 2,992개로 집계되었다. 9개 도와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나진특별시 등이 보유하고 있는 평균 매대 수는 9만 1,083개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개별 시장 1개당 평균 매대수는 2,836개로 추산되었다. 정리하면, 북한의 종합시장 1개당 상대하는 인구는 평균 5만 6,699명이고, 시장 1개당 매대수는 2,836개란 얘기가 된다.

6) 매대 크기에 보다 가까운 매대 지붕면적을 측정하지 않고 울타리를 기준면적으로 매대 수를 측정한 이유는 실제로 지붕 아래 매대 이외에도 시장 울타리 안 곳곳에서 조밀하게 매대 장사가 이뤄지고 있어 지붕 아래 매대만 고려할 경우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을 지붕이 매대 라인별로 덮는 방식이 아닌 시장 전체를 통으로 덮는 경우 매대별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균 2,836개의 매대가 평균 5만 6,699명의 인구를 상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종합시장 관련 종사자 추정

추산된 총 매대 수를 기초로 종합시장 관련 전체 종사자 수를 추산하고자 했다. 우선 기본적인 종사자로 매대 상인, 시장관리소 인원의 추정치를 산출하고자 했다. 총 매대 수만큼 매대 상인이 있다는 전제 아래 총 매대 수를 매대 상인 총수로 동일하게 간주하였다. 물론 한 매대에 여러 명이 교대로 장사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편, 시장관리소 인원은 각 시장마다 일률적이지 않고 시장규모에 따라 차이가

〈표 8〉 시장관리소 인력 추정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분류 항목 상세	전국 도매시장	지역 도매시장	일반 도시시장	일반 시·군단위 시장
	전국 단위 유통망	수위도시 대표시장	저위도시 대표시장	저위도시 소규모시장
	도소재지급	도소재지급	일반 도시	일반 시·군
해당 도시	평양시(직할시)	황해북도 사리원시	함경남도 단천시	평안북도 정주시
	함경남도 함흥시	평안남도 순천시	평안남도 개천시	자강도 회천시
	함경북도 청진시	황해남도 해주시	황해북도 개성시	함경남도 신포시
	강원도 원산시	나선시(특별시)	자강도 강계시	황해북도 송림시
	평안북도 신의주시	량강도 혜산시	평안남도 안주시	강원도 문천시
	평안남도 평성시		평안남도 덕천시	자강도 만포시
	남포시(특별시)		함경북도 김책시	군(145개)
			평안북도 구성시	지구(3)
		함경북도 회령시	구(2)	
개수	7개	5개	9개	6개+150=156
매대 길이 (1개)	60cm	70cm	70cm	80cm
매대 면적 (1개)	1.4㎡	1.75㎡	1.75㎡	1.9㎡
시장관리소 인원수	97(개)×30(명)=2,910	20(개)×20(명)=400	39(개)×15(명)=585	248(개)×10(명)=2,480
합계	6,375명			

* 북한 행정구역상 지구는 총 5개로 나선지구, 선봉지구, 운곡지구, 득장지구, 금호지구 등이 있음. 여기에선 나선지구와 선봉지구를 나선특별시로 통합 계산하고 나머지 3개 지구만 독립적으로 계산하였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이탈주민 면담조사 결과, 대략 1등급 도시의 경우 25~35명, 2등급 도시의 경우 15~25명, 3등급 도시의 경우 10~15명, 4등급 도시의 경우 5~10명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기초로 일단 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각 등급별로 시장관리소 인원의 대푯값을 설정하였다. 1등급 30명, 2등급 20명, 3등급 15명, 4등급 10명 등이다. 이렇게 추산한 결과, 북한 전국의 시장관리소 전체 인력은 6,375명으로 추계되었다.

이를 기초로 시장관리소 전체 인력과 매대 상인 총수를 합한 결과, 북한 전국 종합시장 관련 종사자 수는 총 109만 9,052명이란 결과가 나왔다. 물론 앞서 밝혔듯이 이외에 종합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추정 자체가 힘들어 일단 배제했다. 종합시장 종사자 수 109만 9,052명은 북한 전체 인구의 약 4.4~4.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⁷⁾ 종합시장 매대에서 주로 여성이 장사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여성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약 8.2%에 해당한다.

$$1,092,992\text{명(총 매대 수)} + 6,375\text{명(시장관리소 인원)} = 1,099,052\text{명}$$

위와 같은 추정치를 기초로 보다 구체적으로 종합시장 종사자의 인구학적 범주를 좁혀서 볼 필요가 있다. 종합시장에서 매대 장사가 가능한 연령대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40대 중반 이상의 여성에게만 종합시장에서 매대 장사를 허용하는 연령 제한을 강력하게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는 2015년 폐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는 20~30대 여성들이 매대 장사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매대 장사는 여성이 주로 하고 남성은 신발 및 자전거, 열쇠 수리, 담배 매대, 이발 등을 했지만, 2015년에 역시 60세 이상 남성들의 장사를 금하는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

따라서 현재 종합시장에서 매대 장사가 가능한 인구는 대략 20~65세 사이의 여성인구라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의 북한 연령별 추계인구를 기초해서 이들의 수를 추산해 보면 약 735만 6,183명이 된다. 이들이 종합시장에서 매대 장사가 가능한 인구에 해당한다. 위의 추정 수치에 기초하여 정리하면, 종합시장에서 매대 장사가 가능한 여성인구 약 735만 6,183명 중 약 15%에 해당하는 109만 9,052명이 종합시장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109만 9,052명 중에는 남성 종사자도 있으나, 대체로 시장관리소 인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관련 종사자의 대부분은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해 보인다.

사실 종합시장 이외의 다양하게 확산돼 있는 시장영역을 고려하면 시장 관련 종사자는

7)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의 23,930,231명과 미국 중앙정보국의 약 25,115,311명(CIA, *The World Factbook*, 2016. 7)을 기준으로 하였다.

8) 『테일리NK』, 「최근 북시장서 장사하던 40대 남성들 사라지고 있다는데」, 2015. 6. 26.

이보다 몇 배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종합시장의 매대 상인과 시장관리소 인원 이외에도 종합시장에서 일을 하는 부가적인 시장 관련 공식·비공식 활동도 존재한다. 여기서는 종합시장 내 합법적 종사자 중 추정 가능한 대상에 한했다.

4. 시장 규모 순위

이상과 같이 면적 및 매대 수를 기준으로 북한 전국 종합시장들의 규모 순위를 낸 결과, 청진시 수남시장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해주시의 양사시장, 나선시의 신흥시장, 함흥시의 평수시장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북한 최대 도매시장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평성시의 옥전시장은 10위권 밖의 14위에 머물렀다. 이것은 면적을 기초로 매대 수가 추계되고 이에 기초하여 매대 상인 수를 추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면적 크기에 따라 다른 각 시장의 종사자가 추정되는 방식 때문에 면적이 클수록 시장규모 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면적에 기초한 총 매대 수 추정 방식에는 한계 및 고려할 점이 있다. 구글어스 인공위성 이미지를 통해 시장면적을 측정하고 매대 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만 시장의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시장의 물리적인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과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시장시스템을 이루며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가의 측면을 읽어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령 A 시장의 면적이 B 시장의 면적보다 작아도 A 시장이 전국적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과 비중이 큰 경우가 있다. 앞서 언급한 평성시 옥전시장은 추정면적이 1만 2,804㎡, 추정 매대 수가 9,146개로 전국 시장 중 순위권에 속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가장 전국적인 도매시장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경우 물리적인 사이즈는 제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울타리를 벗어나 주변과 도시 전체로 도매시장 기능이 연장돼 작동하는 경우이다. 개인 주택과 창고, 골목, 거리 등으로 연장된 도매시장 기능을 포함하면 한 도시가 갖는 도매시장의 역할은 단순히 울타리가 쳐진 시장의 물리적 사이즈만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표 9> 면적·매대 수 기준 종합시장 규모 순위

순위	도시/시장	면적 (㎡)	매대 (㎡)	매대 (개수)
1	청진시 수남시장	23,487	1.4	16,776
2	해주시 양사시장	21,303	1.75	12,173
3	나선시 신흥시장	16,869	1.4	12,049
4	함흥시 평수시장	16,721	1.4	11,944
5	평양시 통일거리시장	16,032	1.4	11,451
6	남포시 중대두시장	15,842	1.4	11,316
7	원산시 갈마시장	15,052	1.4	10,751
8	원산시 울동시장	13,581	1.4	9,701
9	남포시 천진시장	13,235	1.4	9,454
10	남포시 산업시장	13,149	1.4	9,392
11	함흥시 사포시장	12,995	1.4	9,282
12	안악군 안악시장	16,239	1.75	9,279
13	평양시 송신시장	12,971	1.4	9,265
14	평성시 옥전시장	12,804	1.4	9,146
15	재령시장	15,252	1.75	8,715
16	청진시 수원시장	12,074	1.4	8,624
17	신의주시 남중시장	11,797	1.4	8,426

IV. 향후 연구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별(도별·시별) 시장 수의 차이는 인구분포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종합시장은 일정한 ‘균질성’을 갖고 분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시장 설치와 운영 측면에서 북한 당국의 정책적 관리가 상당 부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종합시장의 완만한 증가와 분포상 전국적 균질성을 일정하게 갖는 것은 국가의 시장을 통한 주민 접근성과 관리능력이 확장된 것으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이것은 종합시장이 중앙 또는 지방의 재정적 수익이 된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대체하고 있는 시장을 통해 주민들을 일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북한 종합시장 증가 추이와 지역 및 인구별 분포수준을 꾸준히 파악하여 국가와 인민 관계 또는 주민 관리 차원에서 시장의 변화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종합시장의 설치·확장·이전 등과 관련한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김정은 정권 들어 시장을 활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최근 들어 큰 시장들을 시내 중심으로 이동시키거나 신규로 건설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시장의 도심으로의 이전 및 신규 건설은 시장 수요가 많은 곳으로 이전한다는 의미이고, 시장을 통해 중앙 및 지방 당국이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장의 양적·형태적·장소적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치적·경제적 요인과 함께 교통과 같은 지리적 요인 등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시장에 의한 공간구성 변화가 자연 발생적인 것인지 또는 당국 차원의 관리나 민간 자본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령 시장의 위치가 도심 외곽이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시장에 대한 중앙 및 지방 당국의 인식과 정책에서 모종의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감추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에서 경제적·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방재정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위상이 보다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지방마다 시장을 통한 재정 충당을 위해 경쟁적으로 시내 중심으로 시장을 이동시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셋째, 장세의 규모를 보다 현실감 있게 추정하는 것과 함께 실제 쓰이는 방식, 용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장세가 지방단위에서 자체적인 재정으로 온전히 사용되는지의 여부와 중앙 납부를 통해 중앙 재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추정에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기업가적 역할에 대한 분석 역시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기업가적 역할이란 지방의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 또는 제도적 허용을 하는 경우이다.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지방정부가 마치

기업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식 및 비공식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 분석이 필요하다. 시장영역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공식 및 비공식 여부와 시장활동 업종 및 성격에 따라 일정한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참고문헌

『데일리NK』, 「최근 북시장서 장사하던 40대 남성들 사라지고 있다는데」, 2015. 6. 26.
홍민,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서울: 통일연구
원, 2015.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종합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7
(발간예정).

CIA, *The World Factbook*, 2016. 7.